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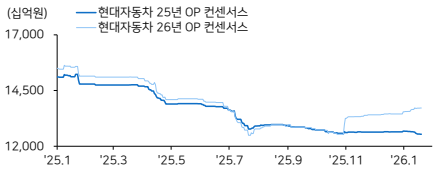
2026.1.22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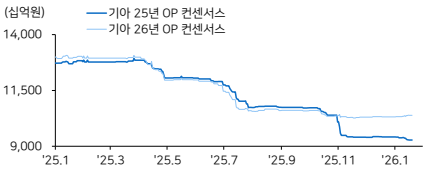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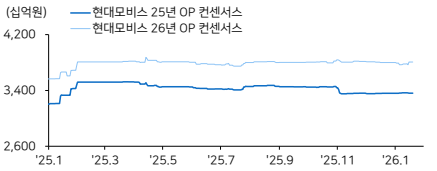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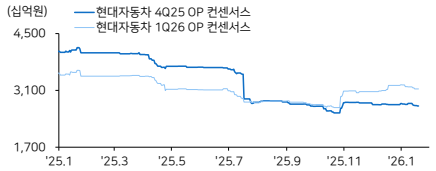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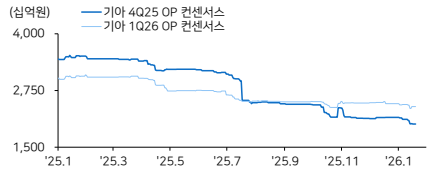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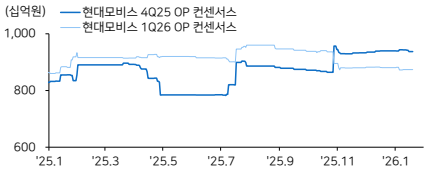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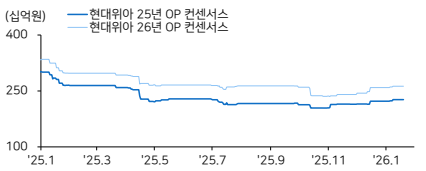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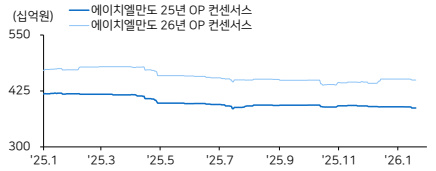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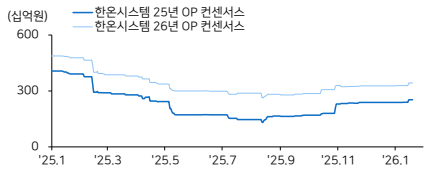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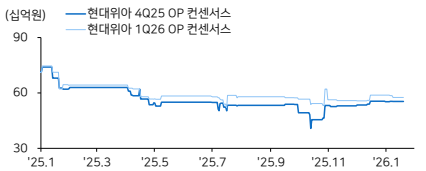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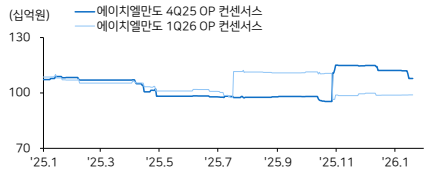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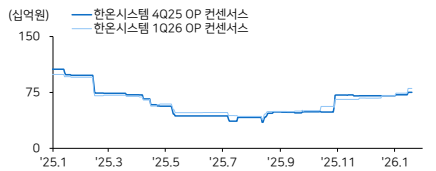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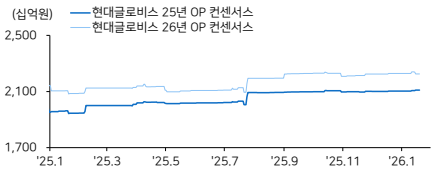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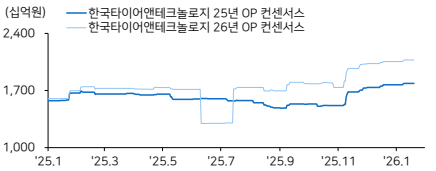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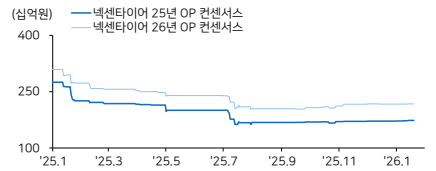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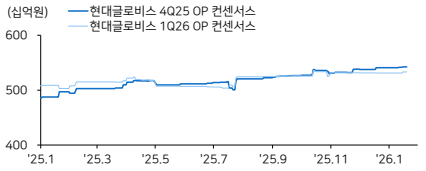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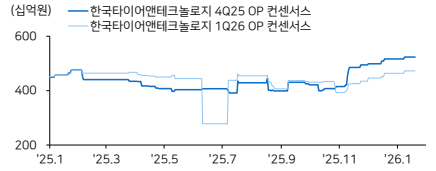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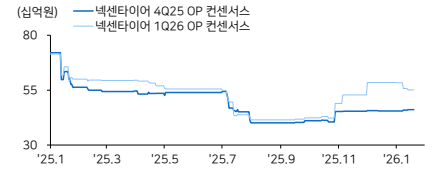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자율주행' 사령탑 "테슬라와 당당히 경쟁" (한국경제)

현대차그룹의 새 자율주행 사령탑 박민우 사장, 임직원 향한 첫 메시지. "올해는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는 결정적 전환점,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확장했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

https://han.gl/2XocW

현대모비스, 차량용 5G 개발 목표…자율주행·SDV 대응 (뉴시스)

차량용 5G 무선통신 텔레매틱스 개발 목표로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 확보에 나선 현대모비스. 기존 4G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 대폭 향상 및 지연 시간 최소화 통해 실시간 차량 제어와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

https://han.gl/3pZMq

Tesla's Cybercab, Optimus output to start 'agonizingly slow', ramp up later, Musk says (Reuters)

일론 머스크, Tesla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초기 생산 속도가 시간이 지나 가속화되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릴 것"이라고 언급. 그는 생산 속도가 새로운 부품의 수 및 제조 단계와 반비례한다고 설명

https://han.gl/G71bB

폭스바겐, 지난해 총 473만대 인도…유럽 시장 리더십 '공고화' (한국경제)

폭스바겐,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473만 대(-1.4% YoY) 차량 인도하며 도전적인 시장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실적 기록.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세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전체 인도량의 8.1%인 약 38만 대의 BEV 인도

https://han.gl/GwYLt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테슬라 NACS' 충전소 구축 (Bloter)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자 중 한 곳인 SK일렉링크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테슬라 북미충전규격(NACS) 충전기 구축 추진 예정. 테슬라코리아도 최근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체 슈퍼차저 구축하는 만큼 테슬라 차량들의 충전 편의 높아질 전망

https://han.gl/OJoBw

현대차, 中 '모멘타' 자율주행 기술 탑재…베이징현대, 레벨2+ 자율주행차 추진 (더구루)

베이징현대, 모멘타와 협력해 자율주행 및 지능형 주행 기술 개발 확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첫 양산형 Lv2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내년 Lv2+급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한다는 계획. 이는 무뇨스 사장이 13일 BAIC그룹을 방문한 이후의 결과

https://han.gl/nGGgk

'자율주행이 더 안전' 판단?…美보험사 "테슬라FSD에 반값 보험료" (연합뉴스)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 최초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 발표. Tesla의 감독형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 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며, FSD SW 업데이트될수록 보험료 추가 할인 가능성 예고

https://han.gl/F3V0t

Tesla Robotaxi's biggest rival sends latest statement with big expansion (Teslarati)

Waymo, 이달 초 Austin에서의 서비스 구역을 기존보다 50%를 약간 넘게 확장한다고 발표. 이로써 현재 140제곱마일 면적에 서비스 제공 중. 그럼에도 2025년 말 확장 통해 약 171제곱마일 확보한 Tesla보다는 여전히 더 작은 면적

https://han.gl/S1Ekq

China to require EV makers to monitor vehicle safety under new rules (Reuters)

중국 공업정보화부, 신규 자동차 제조사 및 차량 승인을 위한 개정 요건 발표하며, 자동차 기업들로 하여금 EV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요구.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판매하는 모든 EV의 안전 상태 추적 필요

https://han.gl/EcFoG

로봇팔로 7종 차량 필레이 생산…'세상에 없던 車'로 유럽 뚫는다 (한국경제)

올해 친환경차 라인업에 승합차·화물차·캠핑카 등으로 변신 가능한 기아의 첫 전기목적기반차량(PBV) PV5 합류. PV5는 전기차 장점 극대화한 다목적 차량으로, 자율주행과 결합하면 로보택시·무인화물 운송분 아니라 업무용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

https://han.gl/7nh4e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